

이인직의 「혈의 누」에 나타난 만국공법과 외국 인식

이 경 재*

[초 록]

이 글은 이인직의 「혈의 누」에서 친일과 근대지향이 연결되는 지점을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청일전쟁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친일배척(親日排淸)의 의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이 글은 친일배척의 태도를 낳는 진정한 이유는 만국공법에 있으며, 이것의 준수 여부에 따라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인직이 강조한 것은 일본과 청이라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아니라, 만국공법을 따르는 세계와 따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구분이었다. 그동안 옥련이가 청군이 아닌 일본군의 총알을 맞은 장면은 텍스트의 균열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지만, 만국공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청이 만국공법을 어기고 총알에 독을 묻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 송실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혈의 누」, 만국공법, 청일전쟁, 을사조약, 일본, 미국
Tears of Blood, Public Law of All Nations, Sino-Japanese War, Eulsa Treaty, Japan, USA

다. 「혈의 누」에서 청이 만국공법과 무관한 존재로 그려진 것은 임오군란을 빌미로 1882년 8월 조선과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한 후, 조공체제 형식에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미하여 조선의 자주권을 부인한 것과 관련된다. 이에 맞서 조선정부는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장정체제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 보자면, 청의 만국공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용이야말로 일본과 대비되는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서 반청의 주요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작품이 창작되던 20세기 초에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본 역시 만국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갔다. 「혈의 누」에는 을사조약 당시 일본이 내세운 보호국론을 체화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만국공법과 관련하여 일본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인직은 결코 만국공법이 지닌 근원적인 한계, 즉 강대국의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라는 측면까지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혈의 누」에서 미국이라는 공간이 유토피아로 형상화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이 이상적으로 형상화되는 이유 역시 만국공법과 맥락이 닿아 있다. 옥련과 구완서가 미국과 접촉하는 입구에는 중국인 강유웨이(康有爲)가 존재하는데, 그는 『실리공법전서(實理公法全書)』를 통해 만국공법을 자연적 이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인류의 평등과 자주권을 주장하였던 사상가다. 이러한 강유웨이가 힘을 지니고 활동하는 미국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만국공법의 진정한 모범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소설 이전에 만국공법으로 상징되는 근대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을 보여준 작품으로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 서론

이 글은 최초(最初)의 신소설로 일컬어지는 이인직의 「혈의 누」에 나타난 만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국공법의 인식과 수용은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세계관의 수용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붕괴되고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형성되던 시기의 중심에 만국공법이 있었다. 이러한 만국공법에 대한 인식이 근대 전환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서사장르인 신소설에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국공법은 근대 전환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화적 질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전 세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국공법인 것이다. 조선은 사대질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질 문명권과의 관계를 만국공법이라는 개념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다.¹⁾

그동안 이인직(李人植, 1862.7.27.(음력)-1916.11.25.(양력))에 대한 논의는 ‘작가의 친일’이라는 그 강렬한 자장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이인직처럼 문제적인 삶을 산 문인도 드물다. 그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 육군성 한국어 통역관으로 종군하였고, 1907년에는 이완용의 후원으로 『대한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이 되었으며, 이완용의 비서격으로 한일 합방에 앞장섰다. 한일합방 후에는 경학원 사성에 취임하여 친일 유럽의 양성에 주력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일본인 처를 두고 장례식마저 일본종교 예식에 맞춰 치른 이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회적 역할 또는 정치적 성격이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²⁾이 되어 왔다. 해방 이후 그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실증주의적 비평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주류적 방법을 차지하였다.³⁾ 최근에 쓰여진 논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견된다.⁴⁾

1) ‘만국공법(萬國公法)’은 미국의 국제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서적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마틴(W. A. P. Martin, 1827-1916)이 1864년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세기 남짓 사용되었다(강상규(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화과 제국 일본』, 논형, p. 17).

2) 양문규(2018), 「임화에 의해 시작된 과학적 방법론 — 이인직 연구방법론의 역사」, 『한국 근대소설 연구방법 이론의 역사와 실제』, 소명출판, p. 191.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박선영은 이인직의 친일을 일본 종교인 천리교와의 관련 아래에서 꼼꼼하게 해명하고 있다.⁵⁾ 유봉희는 사회진화론의 수용 태도를 바탕으로 “이인직이 왜 개화사상에서 친일사상으로 일변했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폐기되어야 한다”며 “그가 생각한 친일은 곧 그의 개화사상인 것”⁶⁾이라고 주장한다. 신승희는 이인직의 소설이 사회풍속의 차원에서 정치 차원에까지 “일제에 의한 조선 합병을 정당화하는 친일성향의 정치소설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⁷⁾고 언급한다.

이와 달리 한일합방 이전의 이인직의 의식을 친일보다는 근대지향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논의들이 있다. 김재용은 1907년 광학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된 『혈의 누』(상)와 이것을 개작한 1912년 『모란봉』(상)을 비교하여, 한일합방 이전에 이인직은 “일본을 미화하고 청을 폄하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근대와 전근대와의 긴장 속에서 그러한 평가를 행하고 있음을 확인”⁸⁾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김종욱도 「혈

3) 친일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식민지 시기에 이인직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선구자적 위치에 주목하였다. “조선 소설의 시조”(김태준), “한국 근대 소설의 원조”(김동인), “현대소설의 시원”(임화) 등의 평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실증주의적인 방식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김하명(1950), 「신소설과 혈의루와 이인직」, 『문학』 6-3, 백민문화사, 전광용(1957), 「이인직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편) 6, 서울대학교, pp. 165-173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민족주체성의 관점에서 이인직의 문학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류적 관점을 형성하였다(양문규(2018), pp. 188-191).

4) “연구의 시각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2000년대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여전히 이인직에 대한 평가는 1970년대의 견해를 답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박선영(2011), 「이인직의 사회철학과 ‘친일’의 함의」, 『사회와 역사』 89집, p. 198)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인직 문학의 친일적 성격에 대한 해명이 연구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5) 박선영(2011), pp. 193-231.

6) 유봉희(2011),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작가, 이해조와 이인직」, 『한국학연구』 24집, p. 236.

7) 신승희(2015), 「이인직의 『혈의 누』 연구」, 『새국어교육』 104호, p. 505.

의 누」에서 옥련의 구원자로 등장했던 인물들은 일본인 군의 이노우에와 조선인 유학생 구완서, 그리고 청국 정치가 Kangyuei 등으로 변모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인이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친일성을 지적했던 기존의 논의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⁹⁾고 주장한다.¹⁰⁾

이 논문은 친일과 근대지향이 연결되는 지점을 만국공법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인직은 1900년 9월 동경정치학교에 입학하여 이듬해 7월에 졸업한다. 이 시절에 이인직은 나중에 통감부의 외사국장이 되어 한일합방의 실무자로 활약하는 고마쓰(小松 緣)의 제자가 되었는데, 고마쓰가 담당한 강의가 바로 “열국(列國)의 정치제도와 국제법”¹¹⁾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인직은 당대에 누구보다도 만국공법에 대한 지식이 깊었다고 볼 수 있다.

-
- 8) 김재용(2017), 「『혈의 누』와 『모란봉』의 거리」, 『한국근대문학과 동아시아: 일본』, 소명출판, p. 25.
- 9) 김종욱(2018), 「Kangyuei(康有爲)의 맥락에서 이인직 다시 읽기」, 『현대문학의 연구』 65집, p. 15.
- 10)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인직 문학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인 연구자 다지리 히로유키는 이인직의 전기적 행적을 새롭게 밝혀내었으며(다지리 히로유키(2006),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강현조는 원전비평적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혈의 누」의 판본을 정리하는 실증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강현조(2014), 『이인직 소설의 텍스트와 작품 세계』, 박이정). 김종욱은 「혈의 누」에서 발견되는 Kangyuei의 영향과 이인직의 공교(孔敎)운동 참여를 바탕으로 신소설 작가 이인직의 모습 속에는 “유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김종욱(2018), p. 28)고 주장한다. 이경림은 「혈의 누」를 ‘사회’를 둘러싼 담론 맥락에 접속된 텍스트로 바라보며, “조선 사회를 토대로 하여 국가를 조직해내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서사적으로 시험해 보았던 텍스트로 해석”(이경림(2015), 「‘인민사회’의 출현 — 이인직의 『혈의 누』론 —」, 『한국학연구』 38집, p. 154)한다. 이경훈은 옥련이의 행로에 주목하여, 「혈의 누」가 “언문 에크리튀르가 발하는 민족의 소리와 함께 국가의 현존을 연출하고자 한다.”(이경훈(2015), 「어머니를 가르친 딸 — 『혈의 누』라는 어학교 —」, 『사이間SAI』 18호, p. 78)고 주장하였다.
- 11) 최원식(2002),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인직」,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p. 150.

만국공법이란 낱말은 이질 문명권의 정신 구조들이 서로 충돌하던 19세기 말에 한때 유행하던 용어였다. 일본 학계에서 사용하던 국제법이란 호칭에 밀려 학문 세계에서 사라진 고유명사가 되었으나, 서양의 공법과 동양의 예(禮) 질서의 충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용어이다. 만국공법은 “공법, 국제법, 국제정치 모두를 지칭하는 학술 용어”¹²⁾라고 할 수 있다. 만국공법 이전에 동아시아에서는 사대 질서의 논리가 작동하였다. 사대 질서의 핵심적 특징으로는 책봉(冊封)의 관계, 봉식(奉朔)의 관계, 조공회사(朝貢回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대 질서를 유지해 온 기본 개념에는 사대자소(事大字小), 조공(朝貢), 행위자의 불평등, 내번(內藩)과 외번(外藩),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 야만, 천하가 포함된다.¹³⁾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국민국가(nation-state)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근대적인 국제법을 의미하며, 이것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중원(中原)과 천자가 책봉한 왕들이 다스리는 조공국을 설정하는 전근대적 중화 질서와는 대비되는 근대적 세계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청은 1842년 영국과 남경조약을, 일본은 1858년 미국과 미일수호통상

12) 김용구(2014), 『만국공법』, 소화, p. 11. 동시에 만국공법은 좁은 의미로는 조선에 들어와 있던 국제법 서적(『만국공법』, 『공법회통』, 『공법편람』 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김세민(2002), 『한국 근대사와 만국공법』, 경인문화사, p. 22). 선교사 마틴(W. A. P. Martin, 1827-1916)은 1864년 휘튼의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1836년 초판, 1855년 로렌스 증보)를 『만국공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이후에도 마틴은 1876년에 두 번째로 마르텐스의 『외교 지침, 외교관과 영사관의 권리와 임무의 개요』(초판 1832년, 게프켄이 1866년 증보)를 『성초지장』이라는 제목으로, 울지의 『국제법 연구 서설』(1860년 초판, 1874년 4판)을 『공법편람』이라는 제목으로 1877년에 한역하였으며, 블룬칠리의 『문명국들의 근대 국제법』(1868년 초판, 1869년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계속 증보하여 1895년에 제5판이 나옴. 마틴은 프랑스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나 몇 년도 판인지는 분명치 않음)을 1880년 『공법회통』이라는 제목으로, 홀이 지은 『국제법』(1880년 초판, 1890년에 나온 3판을 저본으로 삼음)을 1902년 『공법신편』이라는 제목으로 한역하였다(김용구(2014), pp. 57-90).

13) 김용구(2014), pp. 25-40.

조약은, 조선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며 국제법 체제에 편입되었다. 『만국공법』은 1876년 2월 이전에 조선에 전래되었으며, 1880년 일본을 방문한 김홍집이 황준센(黃遵憲)으로부터 받은 『조선책략』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¹⁴⁾

최초의 신소설로 일컬어지는 이인직의 「혈의 누」는 상편(『만세보』, 1906.7.22.~10.10.)과 하편(『제국신문』, 1907.5.17.~6.1.)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일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옥련이 일본군 군의관인 이노우에(井上)의 도움으로 일본 오사카에 가 심상소학교(오늘날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구완서를 만나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을 가며, 마지막에 워싱턴에서 모든 가족이 재회하는 이야기이다. 옥련의 여로는 평양-인천-오사카(大阪)-이바라키(茨木)-요코하마(橫濱)-샌프란시스코(桑港)-워싱턴(華盛頓)으로 이어진다. 하편에 등장하는 “태평양에서 불던 바람이 북아메리카로 들이치면서 화성돈 어느 공원에서 단풍 구경을 하던 한국 여학생 옥련이가 재채기를 한다.”¹⁵⁾는 문장처럼, 「혈의 누」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한데 아우르는 국제적 스케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공간의 이동이 시대와 만국공법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14) 김두진(2010),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の 萬國公法 수용의 他者 認識」, 『한국정치학회보』 44집 3호, 한국정치학회, p. 16.

15) 이인직(2003), 「혈의 누」, 『한국신소설전집』 1,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서울대출판부, p. 63. 앞으로 작품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말미에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한다.

2. 청일전쟁과 만국공법

「혈의 누」는 “일청전쟁(日淸戰爭)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하더니, 그 총소리가 그치매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산과 들에 비린 티끌뿐이라.”(3)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작품의 모든 서사는 청일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 「혈의 누」는 “청일전쟁이 조선인의 생활 가운데 남긴 파문을 그린 작품”이라거나 “소설 전체가 바로 직접 청일전쟁의 후일담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는 임화의 말처럼, 청일전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이다.¹⁷⁾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청일전쟁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친일배척(親日排淸)의 의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청국에의 증오와 일본에의 편향성”¹⁸⁾이나 “애국계몽기의 친일문학”¹⁹⁾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친일배척의 태도를 낳는 진정한 이유는 만국공법에 있으며, 이것의 준수 여부에 따라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작동한다고 본다. 「혈의 누」에서 일본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청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일본은 만국공법을 따르는 문명의 세계에 속하고 청은 만국공법을 모르는 야만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인직은 「혈의 누」에서 이러한

16) 임화(2009), 「개설 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2』, 소명출판, p. 261. 이후에도 「혈의 누」를 논의할 때, 청일전쟁은 늘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다. 최근에 쓰여진 논문에서도 정선태는 “「혈의 누」는 청일전쟁이라는 재난을 배경으로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재난의 원인에 대한 규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정선태(2015), 「「일청전쟁」이라는 재난과 문명세계의 상상」, 『한국학논총』 43집, p. 291)고 평가하였다.

17) 당시 영국은 “청국의 조공국으로 그 지배하에 있던 조선을 청국에서 분리하여 시장으로서 개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명목인 한”(藤村道生(1997), 『청일전쟁』, 허남린 역, 소화, p. 286) 일본을 지원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18) 김윤식(1986),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p. 30.

19) 최원식(1986), 「애국계몽기의 친일문학 — 「혈의 누」 소고」,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pp. 45-62.

대비를 집요할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일본군이 구원자로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고는 하였다.²⁰⁾ 대표적으로 옥련모가 옥련을 찾아 해매던 중 산골에서 만난 농군에게 곱탈당하려는 장면에서 일본군이 구원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²¹⁾ 그런데 서사적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군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날은 “평양성에서 싸움 결말 나던 날”(7)로 “청인이 그림자도 없이 다 쫓겨 나가던 날”(7)이다. “그때는 평양성 중에 살던 사람들이 이번 불소리에 다 달아나고 있는 것은 일본 군사뿐”(11)인 것이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보초병이 옥련모를 구원하는 것은 서사적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이 옥련모를 헌병부로 데려갈 때 보여주는 폭력적인 모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초병이 부인을 데려갈 때의 모습은 “병어리가 소를 몰고 가는 듯”(7)하다고 하여, 일본 보초병은 ‘사람’에, 옥련모는 ‘동물’에 비유된다. 일인도 청인과 마찬가지로 침략자라는 점에서는, “범 같고 곰 같은 타국 사람들”(10)이라는 인식도 드러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헌병부에서 돌아온 옥련모가 정신을 잃고 집에 누워있을 때, “김씨 집에 들어와서 보는 군사들은 마루 끝에 부인이 누웠는 것을 보고 도로 나갈 뿐이라. 아마도 부인을 구하여 줄 사람은 없었더라.”(11)고 이야기

20) 다음과 같은 평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청일전쟁(1894)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청군의 부패를 맹렬히 규탄하면서도 일본군의 만행에는 짐짓 눈감고 고난에 빠진 여주인공 옥련을 일본 군의관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함으로써 일본이야말로 조선의 구원자라는 의식을 교묘하게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최원식(2002), p. 149).

21) 신승희(2015), p. 499.

22) 평양 전투에서 일본은 청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 전투에서 발생한 일본 측 손해는 사망자 180명과 실종 12명이었으며, 청군은 2,000명의 사망자와 600명 이상의 포로를 남겼다. 이 일전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컸으며, 청 세력은 조선에서 쫓겨나게 된다(大谷正(2018), 『청일전쟁』, 이재우 역, 오월의봄, pp. 147-148).

된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결코 무조건적인 구원자가 아니다.²³⁾

결국 청과 일본의 차이는 만국공법의 세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작품 속에서 세 번이나 등장한다.

첫 번째로 청국 군사는 “산에 가서 짙은 부녀를 보면 겁탈하고, 돈이 있으면 빼앗아 가고, 제게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놀부의 심사같이 장난”(8)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단순하게 친일배척의 태도만 드러내려고 했다면 일본군의 긍정적인 모습만 그려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굳이 일본군도 사람들이 피난 가서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이때의 묘사에는 “까마귀떼 다니듯이”(11)라는 부정적인 비유까지 덧붙여져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본군의 행위는 “전장에서 피란 가고 사람 없는 집은 집도 점령하고 물건도 점령하는 법”(11)이라는 만국공법의 하위법인 “전시국제공법(戰時國際公法)”(11)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이노우에 군의관이 청과의 요동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대판매일신문』 호외에는 이노우에 군의관이 요동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실린다. 이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일본인 설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전시에서 적십자기(赤十字旗) 세운 데는 위태치 아니하다더니 영감께서는 군의시언마는 돌아가셨으니 웬일이오니까.”(27)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혈의 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만국공법과 연관시킬 때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옥련이가 청인이 아닌 일본군의 총알을 맞은 것으로 설정된 대목이다.²⁴⁾ 친일배척의 태도에 따른다면, 악한 청인이 어린 옥련이를 다치게 하고 선한 일인이 이를 치료하는 것

23) 청일전쟁이 끝나고 상심한 옥련모가 대동강에서 몸을 던졌을 때, 그녀를 구원하는 것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사공과 고장팔이다.

24) 옥련이 일본군의 총알을 맞는 장면과 만국공법의 관련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윤대석 선생님의 미발간 강연록을 참조하였다. 윤대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으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 작품에서는 옥련이 일인의 총알을 맞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장면을 기존 연구에서는 “구원자로서 일본군의 형상에 균열”²⁵⁾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는 하였다.

옥련이 청인의 총알이 아니라 일본군의 총알을 맞도록 한 설정은, 바로 “만일 청인의 철환을 맞았으면 철환에 독한 약이 섞인지라 맞은 후에 하룻밤을 지냈으면 독기가 몸에 많이 퍼졌을 터이나, 옥련이가 맞은 철환은 일인의 철환이라 치료하기 대단히 쉽다”(21)는 문장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청인은 철환에 독을 묻히고 일인은 철환에 독을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굳이 독약 묻은 청인의 철환을 등장시킨 이유도 전시 국제공법과 관련된다. 전시국제공법의 가해수단제한이라는 항목에는 “독 또는 독을 바른 병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인직은 만국공법을 준수하는 일본과 만국공법을 준수하지 않는 청을 대비시키기 위해 이토록 치밀한 서사까지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를 통해 이인직이 강조한 것은 일본과 청이라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아니라, 만국공법을 따르는 근대와 따르지 않는 전근대에 대한 구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은 모두 만국공법의 세계와는 무관한 청과 만국공법의 세계에 속한 일본이라는 이분법을 보여준

25) 최유학은 “일본군은 예외 없이 옥련이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원자로서 일본군의 형상에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옥련이가 분명 일본군의 철환에 맞은 점이다.”(최유학(2009), 「신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자조력자형 인물 형상 연구」, 『관악어문연구』 34집, p. 396)라고 설명한다. 최종순도 옥련이가 일본군의 총알에 맞았다는 모티프를 두고,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근대적인 독립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선도하고 보호하여 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한다(최종순(2003), 「이인직 소설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p. 110).

26)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은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4권은 일종의 전시 국제공법에 해당하는 ‘論交戰條規’이다. 4권은 ‘論戰始’, ‘論敵國交戰之權’, ‘論戰時局外之權’, ‘論和約章程’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장상규(2007), p. 46).

다.²⁷⁾ 그러나 청이 만국공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 저서들이 가장 먼저 유통된 것도 청이며, 만국공법에 의거한 국제조약도 청이 가장 먼저 체결하였다. 1879년 4월 일본이 오키나와를 병합하자,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저지하는 길은 조선과 서양 열강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다고 생각한 리홍장(李鴻章)은 서양 공법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이유원에게 보냈을 정도이다.²⁸⁾

「혈의 누」에서 청이 이토록 만국공법과 무관한 존재로 그려진 것은 청일전쟁 이전에 청이 조선에 보인 태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에 만국공법을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조선책략』은 1880년 무렵 등장한 중국의 조선 속방론(屬邦論)에 입각해 조선이 유럽 공법 질서에 편입하도록 권고하는 정책 문서였다. 중국의 변형된 사대 질서에 입각한 공법 이론이어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율배반적인 압력이었다. 한편으로는 서양 열강과 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배를 감수하라는 요구였던 것이다.²⁹⁾ 이런 발상은 정교금

27)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과 함께 개화기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휘튼의 『만국공법』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만국공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마틴이 휘튼의 저서를 번역하여 출판한 이듬해에 일본에서도 『만국공법』이 출판(1865)되었다. 이후에도 이 책에 주석을 붙이거나 이를 다시 일상의 구어체로 번역한 것, 혹은 직접 휘튼의 저작을 번역한 작품이 속속 출간되었다. 나아가 만국공법류의 서적은 휘튼의 저작 이외에도 다수가 번역 소개되었다. 청국에서 만국공법 관련 서적이 번역되어 나오기가 무섭게 일본에 소개된 것은 물론이고, 점차 청국보다 먼저 번역하여 소개하였다(강상규(2007), pp. 75-76). 만국공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법의 본질이나 근본적인 사상보다는 구미 선진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심이 점차 옮겨갔다. 주목할 것은 조선의 임오군란 이후에는 실리적인 목적에서 진행된 실증 만국공법에 대한 관심이 ‘군대’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군인간부들에게 국제법 지식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육해군 학교 등에서 국제법 강의를 이루어지게 되고 실용적인 성격의 국제법 특히 전시법규(戰時法規) 등이 실제 현장에서 교범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자신들이 전시규율을 엄격하게 지킨 ‘문명의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크게 선전하였다(강상규(2007), pp. 95-97).

28) 김용구(2014), p. 117.

령(政教禁令)은 자주에 임한다는 사대 질서의 개념보다도 더욱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오군란 이후 현실화 된 한반도 속방론이 하나의 징조로 이미 이때에 나타난 것이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한 청은 1882년 8월 조선과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한다. 이것은 조선의 속방 지위와 종주국으로서의 청의 특권을 명문화했다. 이것은 조공체제 형식에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미한 것으로서 조선의 자주권을 부인한 협정이었다. 조선은 일본이나 미국 등과 이미 동등한 자격으로 조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은 장정을 상하가 정한 조규로 규정하고 조약과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무역장정이 가동된 1882년부터 1894년까지의 조청(朝淸) 간 특수한 관계를 장정체제³⁰⁾라고 하며, 이 시기에 조선은 청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모순으로 점철된 장정체제는 만국공법과 상호 충돌하면서 1894년까지 근대화의 길목에 선 조선의 목을 짓눌렀던 것이다. 무역장정은 조선에 대한 청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본격화되는 명분이 되었고, 심화된 내정간섭은 조선의 개화정책을 좌절시켜 자주적 근대화를 저해하였다. 청은 임오군란 이후 국제관례에서 벗어난 장정체제와 속방의 지위를 강요하고, 조선 정부에 외교에 관한 일을 일체 청에 문의하라고 요구할 정도였다. 조선정부는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장정체제에 저항하고자 하였다.³¹⁾ 속방을 천명하고 특권을 요구하는 청에 대해 조선정부는

29) 김용구(2014), p. 107.

30) 박은숙(2015), 「장정체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저항과 만국공법, 『역사학보』 226집, 역사학회, p. 155.

31)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유길준은 근대 공법의 논리를 들어 청국의 인식을 비판하였고 이 논리는 흔히 양철체제라고 불린다. 그는 증공국(贈貢國)과 수공국(受貢國)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조선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증공국이지만 속국은 아니라고 설파하였다(김두진(2010), p. 16). 조공 관계에 있는 양국의

만국공법의 논리와 열강과의 조약을 내세워 조선은 자주국이며 속방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중국과 각국의 평행(平行)을 요구했던 것이다.³²⁾

조선을 속방의 굴레에 가두었던 장정체제는 “1894년까지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로 작용”³³⁾했으며, 청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는 청의 만국공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용이야말로 일본과 대비되는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자 반청의 주요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만국공법은 힘없는 조선이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 자주와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명문과 논거를 제공하였다. 공의와 도리에 근거하여 각국이 모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만국공법의 명분을 통해, 청의 침략적 손길을 제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만국공법의 ‘자주지권’(自主之權)은 청의 간섭을 걷어내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구원의 손길처럼 인용되었다.³⁵⁾ 사대질서에서는 정교금령에서 알 수 있듯이, 속국과 자주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었지만 만국공법에서 속국과 자주는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만국공법 수용은 당연히 청과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³⁶⁾ 이러한 배경 아래서

관계는 종속 관계는 아니며 이들 두 나라 관계와 이들 두 국가와 기타 국가들의 관계는 두 개로 접혀 있는 이른바 양절체제(兩截體制)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조공 관계와 더불어 근대적인 국제법 관계를 공유하는 특수한 관계인데 이런 특수한 관계 때문에 조선은 결코 속국이 아니며 당당한 독립국가라는 주장이다(김용구(2014), p. 158).

32) 박은숙(2015), pp. 159-184.

33) 박은숙(2015), p. 182.

34) ‘문명과 제국으로서의 중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청이 만국공법으로 대변되는 근대 국제질서에 동참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청의 만국공법 활용이란 어디까지나 서양제국을 견제하면서 중화질서를 견지하기 위한 ‘현상유지’의 도구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이면서도 불가불 자가당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강상규(2007), p. 55)라고 볼 수 있다.

35) 박은숙(2015), p. 163.

36) 김세민(2002), pp. 37-38. 1882년 김옥균은 파크스 영국공사와의 면담에서 “과거 청국의 보호에 의존해 오던 조선은 이제 만국공법에 의지하려 하는데, 최근 청국의

청일전쟁 당시 만국공법과 무관한 존재로서의 청이 그토록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변형된 사대 질서 개념을 만국공법의 논리에 입각해 타파하려는 시도는, 이인직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개화파 인사들은 물론이고³⁷⁾ 고종이나 집권층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⁸⁾ 요컨대 이인직에게 중요한 것은 배척친일이 아니라 만국공법의 준수여부였던 것이다. 배척친일의 태도는 이에 따르는 부수적 입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을사조약과 만국공법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인직은 청일전쟁을 만국공법이라는 틀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인직에게 만국공법은 그 자체로 이상적인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이 창작되던 1906년이라는 시

행동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여 조선은 국제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김세민(2002), p. 83).

- 37) 박영효는 1882년 영국의 파크스를 만나서 중국과 맺은 무역장정과 관련하여 “이 장정은 강요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중국은 자신에 유리하고 조선에 불리하게 조약의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점, 중국은 현재 조선의 내정과 외정에 간섭하여 조선을 완전히 종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 등을 역설”(김용구(2014), pp. 133-134)하였다.
- 38) 임오군란 이후 1882년 9월에 고종은 교지를 반포한다. 여기서 고종은 중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열강이 병존하는 시대로 변했으며 이 새로운 시대에 열강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곧 공법임을 천명한다. 교지는 모든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제 만국의 통례로 서양과 조약을 체결했으니 척양비를 모두 철거토록 명한다는 내용으로 끝난다. 나라의 정책으로 공법을 논하게 되자, 개화파 인사들은 공법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창하고 나섰다. 1885년 영국의 거문도 검거 사건 때,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임오군란 이후 서양 국제법 질서와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한성순보』(1883년 10월 31일~1884년 10월 9일)의 발간이며, 실제로 『한성순보』는 서양 공법의 보급과 수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김용구(2014), pp. 126-145).

점에서 볼 때, 만국공법을 통해 청을 배척하고 일본을 이상화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만국공법에는 근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지만,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이라는 시점에는 청과의 관계에서 나뉘는 긍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작품이 창작되던 1906년이라는 시점에는 만국공법이 친일의 담론이자 내면화된 식민주의적 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⁹⁾

만국공법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는 을사보호 조약의 체결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역시 만국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갔다. 위정척사파인 최익현은 을미사변 이후 쓴 상소문에서 “공법이란 것이 있고 또 조약이란 것이 있는데, 이 속에 과연 이웃 나라의 역적을 도와 남의 나라 임금을 협박하고 남의 나라 국모를 시해하라는 문구가 있는가?”⁴⁰⁾라고 비판하였다. 최익현은 을사조약을 비롯해 일본이 만국공법을 지키지 않고 침략하는 것을 각국에 알려 만국공법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⁴¹⁾ 유인석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서양 각국에 소위 公法이 있다고 하나 그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음을 들어 그 신의의 책임을 묻는다.”⁴²⁾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만국공법에 충실하지 않다는 인식은 을사조약 이후 이승희, 허복, 기우만, 노응규, 이강년, 허위, 원용팔, 이석용 등의 지방 유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⁴³⁾

39) 청일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만국공법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었다. 특히 1890년대 청제 문제나 대한국 국제 문제를 국제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국제법을 내세워 기존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자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김세민(2002), p. 70).

40) 『勉菴集』 卷 4, 『宣諭大員命下後陳懷待罪疏』, p. 74. 김세민(2002), p. 105에서 재인용.

41) 김세민(2002), p. 106.

42) 『毅菴集』 卷 25, 『通告 — 國摺紳士林書』 上, 576면. 김세민(2002), p. 109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해 「혈의 누」에 나타난 일본인 상은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작품에서 고아가 된 옥련이를 구원하는 것은 이노우에 군의(軍醫)이다. 그는 부상에서 회복한 옥련에게 “네가 내 집에 가서 있으면 내가 너를 학교에 보내어 공부하도록 하여 줄 것이니, 네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아무쪼록 너의 나라에 탐지하여 너의 부모가 살았거든 너의 집으로 곧 보내 주마.”(21)라고 말하며, 옥련을 자신의 집으로 보낸다. 아무런 힘도 없는 옥련이 실력을 기르고 부모의 소재지를 알 때까지, 옥련을 자신이 보호해주겠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을사조약 당시 일본이 내세운 핵심논리인 보호국론과 매우 유사하다.⁴⁴⁾

대한제국을 보호국가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을사조약은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한국 부강의 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자신의 보호(실제로는 지배) 아래 둔다는 것이다. 이 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며 외국에 있던 대한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일본에서 옥련을 보호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처음에 이노우에 부인은 옥련을 애정으로 대하지만, 이노우에가 전사하여 재혼을 하려다가 옥련으로 인해 재혼이 힘들어지자 옥련을 홀대한다. 이로 인해 옥련의 “어리광이 며칠 못 되어 눈치꾸러기”(28)가 되고, “날이 갈수록 옥련이가 고생길로 들고 근심중”(28)으로 지낸다. 이

43) 김세민(2002), pp. 111-121.

44) 조선인에 대한 구원자로서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권영민은 “일본적 식민주의 담론 즉 조선 보호론의 소설화 과정”(권영민(2012),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태학사, p. 105)이라고 주장하였다.

제 막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열한살의 옥련에게 “네 운수 좋았으나 내 운수만 글렀다.”(30)며 “이제는 공부 다 하였으니 어미를 먹여 살려라.”(30)고 말할 정도이다. 이로 인해 옥련은 자살을 결심하고 가출을 했다가 순검을 만나 돌아오기도 한다. 이런 옥련을 보고도 이노우에 부인은 “남의 자식을 위하여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병신이지.”(31)라고 말할 정도로 표독하다. 특히 이노우에 부인의 시중을 드는 노파는 옥련이가 “이 몸쓸 늙은 여우야, 사람을 뺏이나 잡아먹고 이때까지 살았느냐, 나는 너 보기 싫어 급히 죽겠다.”(33)라고 할 정도로 모질게 옥련을 대한다. 결국 옥련은 또 한 번 가출하여 이노우에 부인의 품을 완전히 떠난다.

「혈의 누」에서 옥련이가 성장하고 부모를 만날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일본인들은 부정적인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옥련을 구원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준 일본인 이노우에 군의는 사망하여 작품 내에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옥련과 대면한 이후 변화해 나가는 이노우에 부인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이인직은 이노우에 부인을 악역으로 만들지 않고 사실적 인물로 그렸다고 주장한다.⁴⁵⁾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노우에 부인의 부정적인 성격은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만남부터 이노우에 부인은 다음의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옥련모와는 대비적으로 “살기”(24)가 가득한 인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부인의 나이 삼십이 될락말락하니 옥련의 모친과 정동갑이나 아닌지, 연기는 옥련의 모친과 그렇게 같으나 생긴 모양은 옥련의 모친과 반대만 되었다. 옥련의 모친은 눈에 애교가 있더라. 정상 부인은 눈에 살기만 들었더라. 옥련의 모친은 얼굴이 희고 도화색을 띠었더니 정상 부인의 얼굴이 희기는 하나 청기가 돈다. (24)

45) 최원식(1986), p. 303.

이처럼 「혈의 누」는 을사조약 이후 팽배한 일본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만국공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비판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만국공법을 내세우며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지닌 현실추수적 성격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905년 국권이 상실되자 만국공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큰 조류가 나타났다. 하나는 서구 국제법의 여러 측면을 널리 알리려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만국공법의 본질을 파헤치고 폭로하려는 경향이다. 실제로 이용무가 『국제공법』(1908)을, 유성준은 『법학통론』(1907)을, 석진형이 『평시국제공법』(1907)을, 주정균은 『전시국제공법』(1908)을 발행하였으며, 이외에도 한광호, 남정훈, 채기두 등이 서양 공법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⁴⁶⁾ 이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글들이 집필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조선의 국제법적인 지위를 현상유지하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⁴⁷⁾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⁴⁸⁾ 일례로 안국선은 1906년에 쓴 글에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도 지켜야 할 하나의 국제조약”⁴⁹⁾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국공법에 대한 부분적인 부정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1906년의 시점에서 만국공법을 하나의 규제적 이념으로 다룬

46) 김용구(2014), pp. 178-180.

47) 김용구(2014), p. 183.

48) 이러한 측면은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틴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서유럽 국제법 이론이 중국에 전파된다는 것은 당시 중국의 국제적인 불평등 관계를 고정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1840년대 이후 일련의 조약으로 중국은 반(半)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서유럽 국제법 이론의 근간은,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이며 국제조약은 일방적인 힘으로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상유지의 명분이다. 중국의 예속화를 합리화시켜 주는 법적 도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이 중국에서 크게 자각된 시기는 1894년 중일전쟁 이후의 일이다.”(김용구(2014), pp. 76-77).

49) 김용구(2014), p. 183.

다는 것 자체가 지닌 문제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미국과 만국공법

을사조약 이후에는 만국공법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청일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조선은 명실상부한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철저히 부인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독점적 우위를 점하게 되어, 조선을 향한 제국주의적 행보를 가속화하였다. 조선의 독립은 만국공법이라는 국제질서의 논리에 따라 획득되었으나, 조선은 만국공법의 이중적 속성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가 될 조짐이 배태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만국공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개화파들에게도 싹트기 시작했으며,⁵¹⁾ 일례로 유길준은 1880~1890년대 초 긍정론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1900년대에 접어들면 만국공법 부정론으로 기울어졌다.⁵²⁾ 유길준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국제법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⁵³⁾

그러나 이인직은 만국공법의 한계에 대해서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국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50) 김두진(2010), p. 18.

51) 김옥균도 유길준과 유사하게 당시의 국제정세를 약육강식의 논리로 보았다. 박영효는 1888년 2월의 「上疏文」에서 “세계는 弱肉強食이 횡행하는 戰國時代와 같고 국가와 국가간의 공의는 없으며 公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김세민(2002), p. 91)고 주장하였다.

52) 김두진(2010), p. 20. 유길준의 인식변화는 일본을 비롯한 구미 각국의 제국주의가 노골화되면서, 국제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유길준은 정미7조약과 고종폐위사건 등을 겪게 된다(김두진(2010), p. 90).

53) 김두진(2010), p. 165.

일본인의 부정적 모습까지는 인식할 수 있었지만,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라는 만국공법의 태생적 한계까지는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⁵⁴⁾ 이것은 「혈의 누」에서 미국이라는 공간이 형상화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4년부터 1902년까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찍부터 우리의 삶에 가까이 존재했다. 미국은 서구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우리와 조약을 체결(1882년)한 국가이며, 19세기 말에는 이미 여러 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1883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유길준이고, 1894년 이후 본격화되어 대한제국기인 1902~1910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 옥련이 유학하던 무렵인 1897년 10월 공사 서광범의 보고에 따르면 재미유학생은 총 21명이다. 한말·대한제국기 약 40~50여 명 가량이 도미유학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⁵⁵⁾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 무렵 미국 유학을 다룬 신소설은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이인직의 「혈의 누」(1906), 「은세계」(1908), 이해조의 「원앙도」(1909), 「모란병」(1911), 「월하가인」(1911), 박건병의 「광약산」(1912), 이상춘의 「서해풍파」(1914), 신구영의 「원앙의 상사」(1916) 등이 주인공의 미국 유학을 다루고 있다.⁵⁶⁾ 애국계몽기에 미국 유학을 다룬

54) 이인직은 「은세계」(1908)에서 “천하의 백성 잘 다스리는 문명한 나라에서 인종을 구한다 창시하여 그 나라를 뺏는 법이니, 지금 세계에서 백성 잘못 다스리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습니다.”(이인직(2007), 『은세계』, 『혈의 누』, 권영민 책임편집, 문학과지성사, p. 337)라는 문장 등을 통해, 제국주의적 현실에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5) 정병준(2012), 「한말 미국 유학 지식인의 서구 ‘사회과학’ 수용과 현실 인식」, 『이화학연구』 44집, pp. 103-127. 일본 유학은 1881년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 소속으로 파견된 것이 처음이고, 식민지 시대 미국 유학생의 수는 250명 정도였고, 재미한인 총수는 10,000명 미만이었다고 한다(유영익(1994),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p. 149).

56) 조경덕(2014),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 유학」, 『현대소설연구』 56집, p. 562.

소설은 모두 3편이며 이 중에 2편이 이인직에 의해 창작되었다.

「혈의 누」에서 미국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의 유토피아이다.⁵⁷⁾ 이곳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실현되며 현실적 불우나 인물 사이의 갈등 따위는 들어설 여지가 없다. 이인직의 「은세계」에서도 옥순 남매는 5년 동안 미국으로 떠나는데, 이때 머무는 곳도 또한 화성돈(華盛頓), 즉 워싱턴이다. 「은세계」에서는 유학했다는 사실만이 언급될 뿐, 구체적인 워싱턴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시기 워싱턴은 이인직에게 가장 첨단 문명을 상징하는 추상적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⁸⁾ 이인직에게 미국은 자신이 품어온 문명개화의 이상을 증명하는 환상의 텅 빈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인직은 미국에 대한 동경을 곳곳에서 보여준다.⁵⁹⁾

「혈의 누」에 나타난 미국의 모습은 당대의 일반적인 미국 담론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1900년대의 언론 매체에서 미국은 문명 개화를 추구하는 조선이 도달해야 할 전범으로 인식되었으며, “문명 개화의 ‘내용’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자체를 ‘완성된 것’으로 상정하고, 조선이 본받아야 할 규범적 대상으로 인식”⁶⁰⁾했다. 이 글에서는 「혈의 누」에서

57) 임선애는 이인직이 「혈의 누」와 「은세계」에서 “미국을 문명의 표준국가로 이해했으며, 또한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희망적인 공간으로 이해”(임선애(2006), 「이인직 소설과 미국의 재현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33집, p. 90)했다고 주장하였다.

58) 이와 관련하여 임화는 「은세계」와 「혈의 누」에 등장하는 화성돈 유학은 “당시 사람의 교육열과 문화적 희망을 반영한 사실일 뿐 아니라, 실로 최병도와 동일한 시대 사람들의 개화사상과 세대적으로 관련된다.”(임화(2009), p. 247)고 지적한 바 있다.

59) 이인직의 「귀의 성」(1906-1908)에서는 “일로전쟁(日露戰爭)에 강화(講話) 담판을 붙이던 미국 대통령이나 왔으면 김승지의 내외 싸움을 중재(仲裁)할는지 아무도 말릴 사람 없는 싸움이라, 그 싸움은 끝날 수가 없더라.”(이인직(2007), 「귀의 성」(상), 『이인직 소설선: 혈의 누』, 권영민 책임편집, 문학과지성사, p. 99)라고 하여, 최고의 권위 있는 존재로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정도이다.

60) 최기숙(2004), 「교육 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집,

미국이 이상적으로 형상화되는 이유를 만국공법이라는 맥락에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옥련과 구완서가 미국과 접촉하는 그 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수문장이 다름 아닌 중국인 강유웨이(康有爲)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유웨이가 힘을 지니고 활동하는 공간이 바로 미국인 것이다. 언어도 사람도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옥련 일행을 구원해주는 것이 바로 강유웨이이다. 강유웨이는 처음에만 등장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옥련과 구완서의 미국 생활 전체를 지배한다. 그것은 강유웨이가 소개해 준 청인의 주선으로 “서생과 옥련이가 미국 화성돈에 가서 청인 학도들과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41)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옥련과 구완서의 미국 내 생활이 철저하게 학업에만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유웨이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다.

옥련이 미국에 도착한 1899년 무렵에, 실제 강유웨이는 중국을 떠나 고단한 해외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강유웨이가 「혈의 누」에서는 명함 한 장으로 두 명의 어린 조선인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혈의 누」에서 미국은 강유웨이가 나름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웨이가 1890년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공법전서』(實理公法全書)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자연적 이치에 기반 한 인류의 평등과 자주권”을 내세우며, “이러한 논리와 내용을 구성하는 사상적 자원은 대부분 서구의 자연과학과 수학원리, 그리고 만국공법(국제법) 등에서 빌려오고 있다.”⁶¹⁾고 이야기된다. 강유웨이는 만국공법을 자연적 이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인류의 평등과 자주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강유웨이가 힘을 지니고 활동하

p. 126.

61) 차태근(2012), 「康有爲和普遍價値的重構」, 『中國語文論叢』 52집, p. 251.

는 미국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만국공법의 진정한 모범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고전소설에서 유교적 가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심청전」의 용궁과 같은 초월적 세계가 필요로 되는 것처럼, 만국공법과 문명개화의 이상이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상세계로서의 미국이 요청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이인직의 한계

이 글은 이인직의 「혈의 누」에서 친일과 근대지향이 연결되는 지점을 만국공법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청일전쟁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친일배척(親日排淸)의 의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혈의 누」에서 일본이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청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일본은 만국공법을 따르는 문명의 세계에 속하고 청은 만국공법을 모르는 야만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인직은 「혈의 누」에서 이러한 대비를 세 번이나 작품 속에서 형상화한다. 특히 그동안 옥련이가 청군이 아닌 일본군의 총알을 맞은 것은 구원자로서 일본군의 형상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만국공법의 논리에 바탕해서 본다면, 이 장면은 청인이 만국공법을 어기고 총알에 독을 묻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혈의 누」에서 청이 이토록 만국공법과 무관한 존재로 그려진 것은 청일전쟁 이전에 청이 조선에 보인 태도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한 청은 1882년 8월 조선과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한다. 이것은 조공체제 형식에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미한 것으로서 조선의 자주권을 부인한 협정이었다. 이에 맞서 조선정부는 만국공법을 이용하여 장정체제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는 청의 만국공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용이야말로 일본과 대비되는 가장 부정적인 모습이자 반청의 주요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청일전쟁 당시 만국공법과 무관한 존재로서의 청이 그토록 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이 창작되던 무렵에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 역시 만국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갔다. 「혈의 누」는 을사조약 이후 팽배한 일본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을사조약 당시 일본이 내세운 핵심논리인 보호국론을 체화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인직은 결코 만국공법이 지닌 근원적인 한계, 즉 강대국의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라는 측면까지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혈의 누」에서 미국이라는 공간이 유토피아로 형상화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이 이상적으로 형상화되는 이유 역시 만국공법과 맥락이 닿아 있다. 옥련과 구완서가 미국과 접촉하는 그 입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수문장은 다름 아닌 중국인 Kang Yuwei(康有爲)인데, 그는 『실리공법전서』(實理公法全書)를 통해 만국공법을 자연적 이치의 차원으로 끌어 올려 인류의 평등과 자주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Kang Yuwei가 힘을 지니고 활동하는 미국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만국공법의 진정한 모범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인직은 만국공법으로 대변되는 서양의 근대질서에 맹목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유럽 공법의 본질은 유럽 국가들만을 주체로 인정하면서 세계로 팽창하는 그들의 식민정책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법적 도구라는 점에 있다. 만국공법에는 근본적으로 서구 중심의 불평등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본질은 그들의 저술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동양에 전파되면서 크게 영향을 미친 휘튼, 마르텐스, 울지, 블룬칠리, 그리고 홀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런 저술들을 마치 ‘개화’의 길잡이로 한동안 생각하였던 것 자체가 문제적

이다.⁶²⁾ 유럽의 공법체제는 평등주의적 이념이 적용되는 유럽 내부와는 달리, 비서구지역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인직은 이러한 만국공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가 지향한 만국공법과 문명의 세계는 제국을 대체한 제국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인직은 완벽한 세계로서의 미국을 창조해 내면서까지 그러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혈의 누」가 창작되기 1년 전에 미국이 일본과 테프트-카츠라 밀약(1905.7)을 체결하여 필리핀을 자신이 통치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역사적 사실은 별다른 주목이 되지 않는다.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소설 이전에 만국공법으로 상징되는 근대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을 보여준 작품으로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62) 19세기 유럽 국제법 질서의 특징은 실정법주의, 유럽중심주의, 팽창주의에 입각한 폭력의 규범이었다. 상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권국가는 중세의 국제 질서를 파괴한 혁명적인 행위자들이었다. 실정법주의는 법을 국가의사인 합법성으로 귀착시키는 법적 태도, 학설, 입장을 말한다. 이런 법적 태도를 지닌 국제법학은 국가의사 지상주의에 귀착하게 되고, 이 경우 국가란 곧 유럽의 근대국가를 지칭한다. 유럽의 공법은 문명국들의 법으로 선전되었다. 유럽 이외의 국가들을 반(半) 문명국이나 야만국으로 간주해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고 고작해야 제한된 의미의 주체로 취급하였다. 야만의 지역은 침탈과 점령의 대상이며 반문명국은 불평등조약으로 연결해 정치적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이라고 여겨 온 것이다. 유럽 공법이 지닌 팽창과 제국주의적 성격은 승인의 창조적 효과설과 무주지(無主地) 개념을 통해 잘 드러난다. 휘튼은 창조적 효과설의 창시자로서 어떤 정치집단이 문명국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 문명국들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무주지 개념은 토착민은 야만이며 재산권을 보유한 법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근대 국제법의 시조’로 간주되는 비토리아의 전 세계 관념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기독교 세계였다. 유럽의 국제법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세계 팽창을 합리화하는 법적 도구로 전략하였다(김용구(2014), pp. 41-89).

참고문헌

【자 료】

이인직(2003), 『한국신소설전집』 1, 권영민·김중욱·배경열 편, 서울대출판부.
_____(2007), 『혈의 누』, 권영민 책임편집, 문학과지성사.

【논 저】

- 강상규(2007),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강현조(2014), 『이인직 소설의 텍스트와 작품 세계』, 박이정.
권영민(2012),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태학사.
김두진(2010), 『동아시아 華夷論의 變容과 朝日의 萬國公法 수용의 他者 認識』, 『한국정치학회보』 44집 3호, 한국정치학회.
김세민(2002), 『한국 근대사와 만국공법』, 경인문화사.
김용구(2014), 『만국공법』, 소화.
김윤식(1986),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김재용(2017), 『『혈의 누』와 『모란봉』의 거리』, 『한국근대문학과 동아시아: 일본』, 소명출판.
김중욱(2018), 『강유웨이(康有爲)의 맥락에서 이인직 다시 읽기』, 『현대문학의 연구』 65집.
김하명(1950), 『신소설과 혈의루와 이인직』, 『문학』 6-3, 백민문화사.
박선영(2011), 『이인직의 사회철학과 ‘친일’의 함의』, 『사회와 역사』 89집.
박은숙(2015), 『‘장정체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저항과 만국공법』, 『역사학보』 226집, 역사학회.
신승희(2015), 『이인직의 『혈의 누』 연구』, 『새국어교육』 104호.
양문규(2018), 『임화에 의해 시작된 과학적 방법론 — 이인직 연구방법론의 역사』, 『한국 근대소설 연구방법 이론의 역사와 실제』, 소명출판.
유봉희(2011), 『사회진화론과 신소설 작가, 이해조와 이인직』, 『한국학연구』 24집.
유영익(1994),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이경림(2015), 『‘인민사회’의 출현 — 이인직의 『혈의 누』론 —』, 『한국학연구』

38집.

이경훈(2015), 「어머니를 가르친 딸 — 『혈의 누』라는 어학교 —」, 『사이間SAI』 18호.

임선애(2006), 「이인직 소설과 미국의 재현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33집.

임화(2009), 「개설 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2』, 소명출판.

전광용(1957), 「이인직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편) 6, 서울대학교.

정병준(2012), 「한말 미국 유학 지식인의 서구 ‘사회과학’ 수용과 현실 인식」, 『이화사학연구』 44집.

정선태(2015), 「‘일청전쟁’이라는 재난과 문명세계의 상상」, 『한국학논총』 43집.

조경덕(2014), 「신소설에 나타난 미국 유학」, 『현대소설연구』 56집.

차태근(2012), 「康有爲和普遍價値的重構」, 『中國語文論叢』 52집.

최기숙(2004), 「교육 주체로서의 여성과 서구 유학의 문제」, 『여성문학연구』 12집.

최원식(1986), 「애국계몽기의 친일문학 — 「혈의 누」 소고」,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_____(2002),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인직」,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최종순(2003), 「이인직 소설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최유학(2009), 「신소설에 나타나는 구원자·조력자형 인물 형상 연구」, 『관악어문연구』 34집.

大谷正(2018), 『청일전쟁』, 이재우 역, 오월의봄.

藤村道生(1997), 『청일전쟁』, 허남린 역, 소화.

立博士(1912), 『戰時國際公法』, 油印本.

田尻浩幸(2006), 『이인직 연구』, 국학자료원.

원고 접수일: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9년 4월 30일

계재 확정일: 2019년 5월 9일

ABSTRACT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and Foreign Recognition
in *Tears of Blood*

Lee, Kyungjae*

It has been mentioned that, in *Tears of Blood*, the consciousness of the one-sided pro-Japanese dynasties was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shaping of the Sino-Japanese War. The true reason for the pro-Japanese attitude is in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compliance to which determines on which side of the dichotomy between civilization and barbarism one belongs to. Lee In-jik's emphasis is not on the support of individu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but on the division between the world that follows the laws of nation states and the world that does no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reassess the scene where Ok Ryun is hit by the bullets of the Japanese army rather than the Qing army; this is not a crack in the text, as previously believed, since from the aspect of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Qing is the poison applied to the bullet. In 1882, the Qing Dynasty was portrayed as an irrelevant entity to the entire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This is related to the denying of the sovereignty of Joseon. Against this backdrop, the Joseon government tried to resist the system of rule by using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At the time when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ignorance or misuse of the Qing Dynasty's civilization law was the most negative aspect compared to Japan, and it was the main focus of anti-Qing sentiment. However, at the time that the work was created, the recognition of Japan as a nation that did not observe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was spread widely. In *Tears of Blood*, there is a scene in which Japanese criticize Japan's problems in relation to the nation's public works law through the negative image of the Japanese who embodied Japan's protectionism at the time of the Treaty of Friendship. However, it seems that Lee In-jik never perceived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nation-state law, that is, the logic that supports the imperialism of the great power.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formation of utopia in the space of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is so idealized is also inextricably linked with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At the entrance to the contact with the United States is the Chinese Kangyuwai (康有爲), who through the whole book 『實理公法全書』 raised national law to the level of natural reason and claimed the equality and independence of mankind. The space of the United States where Kangyuwai is working with power naturally has a status of being a true example of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Lee In-jik's *Tears of Blood* is a work that shows a blind intention toward modernity which is symbolized by the nation-state, and should not merely be approached as a pro-Japanese novel.